

여야, 예산안 심사 시작하자마자 정치공방

복지위, '문형표 사퇴 문제'로 개의조차 못해

국방위, '박창신 신부 규탄결의안' 놓고 설전

정무위,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고발안건 상정

국회는 26일 상임위원회별로 내년 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에 들어갔으나 곳곳에서 여야 간 충돌이 벌어지면서 예산 심사보다는 정치공방으로 변질됐다.

오늘 열릴 예정이었던 상임위는 운영위·국방위·정무위·기획재정위·안전행정부·국토교통위·보건복지위·환경노동위·미래창조과학통신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산업통상자원위 등 11개, 나머지 상임위들도 27일 이후 예산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날 보건복지위는 야당 의원들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사퇴를 요구하며 회의에 불참, 개의조차 못하고 무산됐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이날 회의에 앞서 문 후보자 사퇴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회의에 불참키로 의견을 모으고 회의장에 나오지 않았다. 야당 측 간사인 이복희 의원은 "문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하는 항의의 뜻에서 오늘 회의에 불참했다"면서 "복지부의 예산안을 내실 있게 점검해 모래줄 예산안 심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방위에서는 최근 연평도 포격 도발의 책임이 우리 측에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박창신 원로신부에 대한 규탄결의안 채택을 놓고 여야 의원 간 설전이 벌어졌다.

새누리당은 박 원로신부의 발언을 우리나라의 영토와 주권을 부정하고 국민을 호도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규탄결의안을 채택하자고 주장했지만, 야당은 잘못된 발언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개인차원의 의견 표명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맞섰다.

정무위는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에 대한 국경감사 증인 고발의 건을 상정했다.

운영위에서는 박종준 경호실차장이 민주당 강기정 의원과 청와대 경호요원 간 몸싸움 사건에 대해 "국회 내에서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이런 일이 발생한 데 대해 경호 책임자로

서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경호 업무에 있어 세련되고 유연하도록 많은 교육을 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호실이 이번 사건에 대해 유감의 뜻과 재발 방지 의사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이날 결산심사 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2012년 회계연도 결산안'과 3건의 감사원 감사요구안을 의결했다. 이들 안건은 오는 28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예결위는 우선 '안보 관련 대(對)국 민 교육사업 실행'에 대해 감사요구안을 처리했다. 이는 지난해 예산을 앞두고 국가보훈처 등 국가기관의 안보교육을 놓고 야권이 '우편향' 정치개입 의혹을 강력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예초 민주당은 대국민 교육사업의

정치 중립 문제에 대해 전반적인 감사를 요구했으나, 새누리당은 '안보 관련 교육'으로 감사 대상을 특정하는 선에서 야당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결위는 이와 함께 ▲4대강 수질 관리용으로 개발된 로봇 물고기 등 연구개발(R&D) 사업 관리운영 실패 ▲송례문 복원사업 등 문화재 유지보수 실패에 대해서도 각각 감사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예산결산특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어 새해 예산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공청회에서는 "경제활성화와 복지지를 모두 추구한 탓에 어정쩡한 예산이 편성됐다"며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 보니 예산안에 담긴 국정운영의 방향성이 모호해졌다"고 꼬집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여야 중진의원들이 26일 국회에서 국회정상화를 위한 조찬모임을 갖고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김태환 새누리당 의원(왼쪽부터),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 우윤근 민주당 의원, 이병석 국회의장, 박병석 국회의장,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 남경필 새누리당 의원, 김성곤 민주당 의원.

“꼬인 정국 풀자” 손잡은 여야 중진

우윤근·남경필 의원 주선...소통·만남 확산 정국정상화 노력

여야 중진 의원들은 26일 국회에서 조찬 회동을 하고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등으로 경색된 현 정국에 대한 해법을 논의, 중재노력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병석, 박병석 여야 국회의장들을 비롯한 여야 중진 의원들은 이날 회

동에서 치열한 정치공방 탓에 새해 예산안 심사가 지연되면서 준예산 편성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현 상황의 심각성에 인식을 같이하고 해결책을 모색했다.

이들은 새누리당 지도부는 정국 현안 협상과 관련해 재발권이 약하고,

민주당 지도부는 당내 일부 강경파의 목소리에 눌려 소신껏 협상에 임하지 못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중재노력을 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의장은 모두발언에서 "여야 간 강대강 대치로 인해 대한민국에 정치가 없어지는 모습으로 비치는 매

우 위중한 상황"이라면서 "여러 의견을 나누는 뒤 여야 지도부에 전달하고 또 협상력을 발휘해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부의장은 "정국이 풀리지 않고 국민의 걱정이 많기 때문에 여야 지도부가 정국을 잘 풀어가도록 도와주는 의미에서 모이게 됐다"며 "여야 지도부가 어려운 문제를 푸는 데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우윤근 의원은 "여야 간 소통을 늘리고 정치성을 복원하자는 뜻에서 마련된 자리"라며 "정국 협상에

임하는 여야 지도부에게 힘을 보태주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은 회동 후 기자회견과 만나 "여야 간 만남의 통로를 활성화하고 회동에서 나온 얘기를 양당 지도부에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원과 남 의원의 주도로 마련된 이날 회동에는 새누리당 송광호·정병국·김태환 의원, 민주당 김성곤·원혜영·유인태 의원 등 10명이 참석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안철수·송호창 의원 기자회견 “박대통령 특별검사 수용편 구국의 지도자로 기록될 것”

무소속 안철수·송호창 의원이 26일 공동 명의의 기자회견을 열어 "하루속히 대선 문제를 매듭짓고 국회와 정치권이 복지와 민생 문제에 주력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며 박근혜 대통령의 특검 수용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들은 "특검 수용은 여야 정치권과 박 대통령 모두를 승자로 만들어줄 것이고 구국의 결단을 내린 지도자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두 의원은 "국가 권력기관의 대선 개입 문제로 국론은 분열되고 민생은 물려버렸다"며 "그러나 정부·여당은 진실을 밝히는데 협조하기는커녕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수사를 발미로 종북몰이에 여념이 없으며, 국회 발안대에 선 야당 의원까지 김일성주의자로 내모는 행태는 과거 권위주의 시절에도 보지 못한 일들로, 급기야 종교인들까지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재의 답답한 상황에 대해 저희를 포함해 모든 정

치인이 그 책임을 져야 하지만, 그중에서도 대통령에게는 더 큰 책임이 있다"며 "대통령의 서슬 퍼런 안고한 모습 때문에 새누리당이 아무런 독자적 정치행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검찰이 수사한다고는 하지만 수사법 배제와 징계, 위압 의혹으로 정부는 신뢰를 잃었다"며 "이대로는 검찰이 예외 수사결과를 발표해도 다수 국민은 여전히 의혹을 거두지 않을 것이고 대통령은 다수 국민의 마음 속에서 계속 부정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송호창 의원만 참석해 회견문을 읽었다. 송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28일로 예정된 안 의원의 정치세력화와 창당 문제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지에 대한 예측 가능한 정도의 이야기는 있을 것"이라며 "다만 구체적인 스케줄이나 방법, 형식 등은 말하지 않을 것 같다"고 전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새누리 긴급 최고위원회 개최 민주 제안 '4인협의체' 의견 수렴

새누리당은 26일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어 민주당에서 제안한 '4인 협의체'를 통한 대선개입 의혹 특검 도입 논의' 등에 대한 수용 여부를 논의했으나 사실상 모두가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황우여 대표는 27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중진·원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볼 생각이지만, 특검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민주당의 제안을 수용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날 최고위원들은 민주당의 제안을 사실상 '특검·특위 일괄 도입'의 변형 판으로 해석하면서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을 표시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특히 최경환 원내대표는 "특검은 정쟁을 끄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불러 일으키는 것인 만큼 함부로 할 수 없다"면서 "특검을 언젠가 할 수도 있다는 뜻을 풍기면 민주당이 자꾸 더치고 나올 것"이라고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 대표는 회의에서 주로 최고위원들의 생각을 듣는 데 치중했지만 "야당을 자꾸 자극하면 해줄 일도 안 해줄 수 있다"는 의견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에서는 황 대표가 실제 특검에는 부정적이지만 야당과의 협상용으로 특검 논의 카드에 응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신도시 공인중개사 사무소

■ 상가건물이나 땅 삽니다 ■

급매로 팔아야 할 상가나 땅이 있으시면 저희 부동산에 전화 주십시오. 최대한 빠른 시일에! 높은 가격에! 바로 처분에 드립니다.

상가건물 매매

- 주월동 대지 2,000㎡, 건물 2,020㎡. (수익률 10%) 대출 16억5천포함. 매매가 38억.
- 쌍촌동 대단위아파트단지 내 대지 350㎡, 건물 996㎡ 매매가 16억.
- 신창동 대지 488㎡, 건물 966㎡ 매매가 15억 (공실없음)
- 풍암동 상업지역내 위치 좋은 신축상가 대지520㎡, 건물 3,135㎡ 대출28억 포함. 매매가 42억.

토지 매매

- 남구 주월동 대지 3,768㎡ 도시형생활주택, 소형빌라 신축적합 매매가 32억.
- 광산구 수완동 수완자동차매매단지 입구, 전 2,230㎡ 광고효과 최고. 물류센터, 타이어 적합. 매매가15억.
- 화순군 동면 오동리 전, 임야. 계획관리지역 17,730㎡ 매매가 2억9천만원.
- 나주시 부덕동 2차선 도로접 제1종일반주거지역 내 전 2,350㎡ 건축가능. 투자적합 매매가 1억9천만원 (급매)

비싼시더라도 대면해서 상담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시 만큼 보답하는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 062-513-4985, 010-2338-3113

원룸전문(전대1분)

- ★전대 상대 농대1분★
 - 룸11개(1층 상가) · 월수익 420만 · 준공완료
 - 매가 5억9천(보증금 2000, 용 1억2천)
- ★전대 정문 1분★
 - 룸18개(만실) · 월수익 600만
 - 매가 6억9천(보증금 2억, 용 1억2천)
- ★전대상대2분 용봉지구★
 - 룸19개(1층 상가, 주택1개)
 - 월수익 850만 · 매가 12억(용 4억)
- ★화정동 APT 입구 코너★
 - 1층 상가, 2층상가, 3층룸9개, 4층룸9개
 - 월수익 1300만 보3억 · 매가 19억
- ★남구 백운동 ★
 - 룸15개(주택1개) · 매가 8억8천
- ★전대정문 1분 ★
 - 룸15개(만실) · 매가 6억3천 (보증금 4천 월510, 용 1억2천)

신한공인중개사

H.P. 010-6670-9800

선암동 전원 주택용지분양

자연과 함께 하는 **어등산 빌리지**

광산구 선암동 414-17번지 일원
분양면적 7008㎡(87구)
분양가격 전용면적 평당 130만원
각 필지 면적 약150평~420평(분할 · 합병가능)
현 토목공사 90%진행중

70% 분양완료!

단지설명 자연속 힐링 주거단지

1. 분양면적은 전체가 쓸 수 있는 전용면적입니다.
2. 각 필지별 상 · 하수도관 연결공사 완료
3. 각 필지별 건축허가 완료(각종세금 납부완료)
4. 각 필지별 6m도로 접

찾아오시는길 선운지구 영남대학교 어등산골프장 어등산 빌리지

도심속 친환경 명품주거 타운

선운공인중개사

010-2475-0933
010-5166-0013

급매매

신안동 신안 사거리 부근 30m 도로변 코너

6층 상업지역 건물

건물 600평 토지 151평

평당 토지 가격 600만원 정도

토지 가격 만도 9억정도

매매가격 9억 4천만원

라멘조 총별 100평 정도

조건은 전세, 월세 안고 구입

010-3215-9969

신축원룸

(전대·상대·농대 쪽문앞)

원투룸 14개를 ▶11개로 최고위치!

1층상가 (2~4층 원투쓰리룸)

등기완료 (전면대리석, 벽돌집)

보증금 3천 월435 (연 5천2백)

매가 5억9천 (용1억3)

수완지구 상가

1층매매(17.5평) 3억5천

3층매매(85평) 3억2천

1층임대(18평) 보3천 월130만

3층임대(86평) 보3천 월190만

☎062)527-7600